

자이툰 부대 장병 격려 메시지

친애하는 자이툰 부대 장병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당당하고 늠름한 여러분의 모습,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정과 헌신에 깊은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이런 날에는 더욱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현지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추석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용사들입니다. 이라크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서희·제마 부대가 각국 언론의 많은 찬사를 받았던 것처럼 자이툰 부대도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명예를

더욱 높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러분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무운을 기원합니다.